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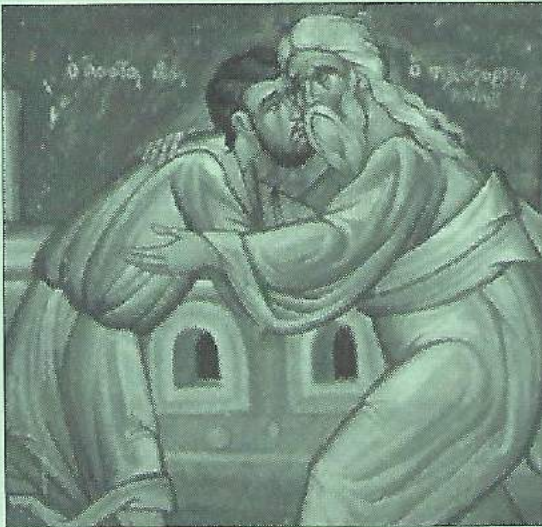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23주일
제37권 42호(가해) 2017년 9월 10일

[묵사]



<단죄하지 말자>

단죄하지 말자!

따끔한 매와 충고
이 충고의 의무와 방법

이웃을 판사처럼 단죄하지 말자.
잘 모르는 내용일 뿐 아니라
판단하는 일은 하느님이 하실 일.

우선 기도로써,
기도를 곁들인 충고,
고쳐지길 희망하고,
인내와 지혜로써 상대방을 대할 때,
형제를 구할 수 있다.

충고를 받는 입장
모든 인간의 나약성을 솔직히 시인,
자신에게 솔직하고,
고맙게 받아들이자,

-오-

petrus3@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미사 안내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 토요일) 성소후원회(첫 토요일) 유아세레(씩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오전 10:00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8:00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성소후원회 (2,3,4,5주일)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안나/양열/성모/자모/대견) ●꾸리아 ●빈첸시오회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30 오후 1:00 오후 12:3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오전	오후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2:00~7:00(오후)
수	9:30~11:30(오전)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 출발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토요 저녁 미사	(연)이용식 베드로, 서성용 베드로, 박승주 카타리나의 조상 & 박승호 & 박 레이몬드
	(생)박승주 카타리나의 가족, 정명수도미니코 & 이성순 카타리나
학생 미사	(연)
	(생) 한국학교 교사들, 서운아 미카엘라, 김크리스찬 레지나,
주일 낮 미사	(연) 박정미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엄정자 분다, 김차옥 요셉 & 김복남마리아, 정상문 스테파노, 김진엽 마지아, 석순영 아네스, 오본세, 김영배 마리아, 김정례 수산나, 김요셉 & 윤마리아 & 도밍고 & 요한 & 세레나 & 타오로
	(생)최수복 클라라, 김준 방지거 & 김영애 크리스티나가정, 손석 스테파노, 백삼위 성령기도회,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에제키엘(Ezekiel)33,7-9

화답송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어서 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때로세.○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트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제 2독서 로마서(Romans)13,8-10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
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복음 마태오(Matthew) 18,15-20

영성제송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
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제1장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III.생물 다양성의 감소

42. 생태계의 기능을 더 잘 이해하고, 환경의 중요한 변
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의 적절한 분석을 목
표로 하는 연구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모든 피
조물은 서로 관련되어있기에 사랑과 존경으로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피조물인 우리는 모두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은 이 가족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멸종위기에 놓여있는 생물 종 들을 특
별히 보살피면서 보호계획과 전략을 개발하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 종 들을 철저히 관리하게 해야 합니다.

42. 생태계의 기능을 더 잘 이해하고, 환경의 중요한 변
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의 적절한 분석을 목
표로 하는 연구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모든 피
조물은 서로 관련되어 있기에 사랑과 존경으로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피조물인 우리는 모두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은 이 가족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멸종위기에 놓여있는 생물 종 들을 특
별히 보살피면서 보호계획과 전략을 개발하여 그 지역
에 살고 있는 생물 종 들을 철저히 관리하게 해야 합니다.

IV.인간 삶의 질의 저하와 사회 붕괴

43. 이 세상에서 인간도 생명권과 행복권을 누리는 피
물이며, 고유한 존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는 환경 훼손, 기존의 개발방식, 버리는 문화가 사람 들
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
습니다.

44.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는 많은 도시들이 불균형 적
이고 부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유독 가스 배출에 따른 오염뿐 아니라
도시의 혼잡, 열악한 교통, 시각공해, 소음으로 건강하
게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들은 거대
하고 비효율적인 체계를 갖고 있으며 에너지와 물을 지
나치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 계속>

오늘의 성가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249	249	249
봉헌	261	261	269
성제	106	106	292
파견	200	200	343

두 사람이 마음 모아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이루어집니다! 왜일까?

서품을 받은 지 40년이 훌쩍 넘은 저는, 네 곳에서 20년간 본당 신부로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저의 모습이 형성되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형성된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본당은 저를 사목자로서, 신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성장시킨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니,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때의 그 시간은 대부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달갑지 않은 기억이 문득 나를 멈추게 합니다. 그 중 하나는 어느 신자와 사목자인 저와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를 되새기며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던 중, 순간 뒤통수를 광 얻어맞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느낌은 '사목자인 나의 잘못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 한 형제를 진실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공동체 전체가 애를 쓰는 참된 모습이 저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늘 본당 공동체의 중심에 우뚝 서 있어야 하는 사목자인 저는, 어떤 이유든 공동체가 위축되거나 분열되는 상황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얼마나 몸과 마음을 다했느냐고 주님께서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더듬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순간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내 의식으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기도를 통해 지금 저는 그 누구와 소통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는 다음의 말씀은 희망,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희망이 이미 실현되고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지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음을 모아 같은 원의와 소망을 품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 안에서 소통하는 공동체, 이 안에서 무엇이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청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주님이 함께 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나와 너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교회의 신비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내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동안 끊겨진 관계로 우울했던 마음속에 희망의 빛이 떠오릅니다. 나의 가족들 안에서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보입니다. 누군가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요사이 그 누구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홍성만 미카엘 신부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담당

눈은 마음이라지

거울을 봅니다.

눈 끄는 끼지 않았는지

치아에 이물질은 없는지.

거울을 봅니다.

옷 매무새는 괜찮은지,

화장이 뜨지는 않았는지,

거울 앞에서 눈가의 주름은 섬세하게 보면서

정작 눈동자는 보지 않았습니니다.

이제야 궁금합니다.

눈동자가 여전히 빛나는지, 주름만큼 눈동자도 깊어졌는지,

나의 눈동자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 이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폴로렌시오	신덕레 데레사	남성철 베네딕도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유지아 클라라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	송인선 안젤라	박혜정 레나타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1독서	박혜정 레나타	박진수 스테파노	정인옥 아오스딩
제2독서	변복순 베로니카	한경숙 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2독서	서용숙 에스텔	김금자 데레사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복 1,2반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2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 시작 20분 전에 독서와 복음 읽기를 합니다.
- 매일미사책이나 성경을 가지고 미사에 참여 합니다.

 9월 순교자 성월
 한국 교회는 해마다 9월을 '순교자 성월'로 지내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본받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 ◆ 주일학교 / 한국학교 오늘 주일(10일)부터 개학
 긴 여름방학이 끝나고 오늘 주일(10일)부터 우리본당의 주일학교와 한국학교도 개학합니다. 방학 동안 해이해진 마음을 추스리고 학교생활과 교회생활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자녀들을 도와줍니다.

◆주일학교 신입 복사단 2차 입단식

- 일시: 오늘주일 (10일) 11시 미사 중
- 대상학생: 김시우 레오, 박지민 안드레아, 신환희 비오, 이태희 마르코, 정연하 마르치아, 정채운 루치아, 정채환 비오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 축일(9월20일)

백삼위 본당의 날(9월 17일) 행사 안내

- 미사 시간 변경안내 : 아침미사 : 7시 30분
낮 미사 : 10시

주일학교, 한국학교는 수업이 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삼위 본당의 날 행사 부스를 분양합니다.

- 9월 17일 본당의 날 행사에 각 단체별 부스를 (먹거리, 특산물, 음료 등등...) 접수 받습니다.
- 참여를 원하시는 단체는 사무실에 신청하여주십시오.
- 문의: 박개순 도미니코 ☎(310) 997-7770

◆ LA대교구 다민족 연례 미사 봉헌

- 일시 : 9월16일(토) 오전 9시30분
- 장소 : LA대교구 주교좌 성당(555 W. Temple St. LA)
- 미사집전 : 호세 고메즈 LA 대주교
- 한복을 입고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요셉회 모임 변경안내

- 본당의 날 행사관계로 모임을 임시변경합니다
- 일시: 9월 24일 (넷째 주일) 12:45pm
- 장소: 강당
- 문의: 정기은 비오 ☎(310)780-2789

◆성요셉 천주교아버지학교 제 6기 등록안내

- 일시 : 2017년 9월 10일, 17일, 24일, 10월1일 총4회 매주 오후 2시
- 장소 : 성 라파엘 한인 천주교회 12366 Rosecrans Av. Norwalk, CA 90650
- 등록비 \$150
- 문의 : 오재민 바오로 ☎ (562)505-8070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9월10일 : * PV3반 (콩나물 비빔밥 \$ 3)
 * 주일학교: 치킨가스 (자모회)
- 9월17일 : 본당의 날 행사(구역별 점심)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김기정 김 명 김상규 김상근 김선제 김양금 김윤진 김은학 김정선 김정웅 김종렬 김현숙 박씨니 박인식 박정희 박준범 박진수 방정복 배태임 변복순 성낙호 양영자 오상준 오일순 윤석구 윤화경 이근모 이미예 이상석 이재정 이주창 조소영 조준제 최상만 하정화 홍석인 황철수 익 명 한길선례	성전헌금	김기정 김 명 김선제 김양금 김윤진 김정선 김현숙 박씨니 박인식 박정희 방정복 변복순 성낙호 양영자 윤화경 이근모 이미예 이상석 이재정 이주창 조준제 최상만 하정화 익 명 한길선례
	합계:\$4,100		합계 : \$1,920
주일미사헌금 :\$2,028	성당캠프 :\$ 20	감사헌금 : \$170(서예반, 익명)	2차헌금 :\$ 469

◆한국순교자 천주교회 창립 40주년 기획 골프대회
창립 40주년기념 성당확장프로젝트로 자금마련을 위한
골프대회(샷건방식)를 개최합니다. 많은 신자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시 : 9월 24일 (주일) 오후1시
- 장소 : Royal Vista Golf Club
- 문의 : 김영수 사무엘 (562)991-4200

◆남가주 한인 M.E.제 79차 첫 주말

- 일시 : 9월 23일(토)오후7시~24일 (주일)오후5시
- 장소 : 아씨시 피정의집
1519 Woodworth St.San Fernando, CA 91340
- 참가비 : 부부당 \$350(숙식포함)
- 연락처 : 오승준 미카엘 & 수완 아네스 ☎ (562)714-5901

◆일상 삶 안에서의 영신수련(9개월 과정)

- 지도 : 박준성신부 (예수회)
- 기간 : 2017년 9월~2018년 6월
- 장소 : 로올라 영성센터, 성 요셉 수녀원내 영성 건물
434 S. Batavia St. Orange, CA 92868
- 문의 : 전 아네스 (Jenny Jun) ☎ (213)507-1144

◆성서사십주간 하반기 개강

- 성서사십주간은 성경통독 프로그램입니다.
- 일시 : 2017년 8월 24일 - 12월 14일(매주 목요일)
오전반: 오전 10시 - 12시 / 저녁반: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 과정 : 구약 역사서(열왕기) - 시서와 지혜서
 - 준비물 : 성경, 필기구, 개인첩
 - 회비 : \$70(교재 별도구입)
 - 장소 : 남가주 가톨릭성서모임(CBLM) 센터
6751 Western Ave, Buena Park, CA90621

◆제 19차 '청실홍실' 행사 안내

- 시간 - 2017년 9월 10일(주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 장소 - 엘에이 옥스포드 호텔 745 S. Oxford Ave, L.A
- 참석자 - 결혼적령기를 맞은 자녀를 둔 부모님
- 회비(식대포함) - \$100 (두 사람\$150 - 세 사람 \$200)
- 주관 - 남가주 천주교 한인종신부제협의회, '청실홍실' 운동본부
- 6. 연락처 - 이메일<chungsilhongsil@gmail.com>
전화<714-530-3111>

- 결혼이 성사되더라도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 신청서를 제출한 분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음(선착순 50명)

◆예수성심 피정의 집 건립

- Payable to : Jesus Sacred Heart Retreat Center
Mailing Address : PO Box 75509, LA, CA 90075-5509
- 금액에 상관없이 벽돌 하나 봉헌하는 마음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자동입금도 가능합니다.>
- 구좌번호 : Bank of Hope 은행
Routing No. 122038251
Account No. 001913271
- 문의 : 최대제 신부 ☎ (213)248-9707

소 공 동 체 부 장		김준 방지거 625-3312		
구 역 / 장	반	반 장	비 고	
토렌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계 메히틸다 713-4926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2	장수영 페트리치오 781-0787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3	한길선레 스콜라스티카 218-7824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토렌스 서	1	박동수베드로 218-7340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2	김 아네스 (419)309-7256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3	박명순 안나 968-7600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토렌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1	최옥희 레데사 755-8462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토렌스 북 황지영안젤라 (938-8089)	1 & 2	최미열 클라라 938-8089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3	1,2반과 같음		
하버 칼슨 김윤진 카타리나 (997-5545)	1 &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3	1,2반과 같음		
	1	유현화 리디아 735-3722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2	안희정 스콜라스티카 (213)344-9738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P.V 유리아 클라라 (793-6157)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4	변복순 테로니카 592-6945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이번 주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	--

제 36차 본당의 날

* 주제: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 행사시간:

10:00 AM - 11:30 AM : 본당의 날 기념미사

11:30 AM - 12:30 PM: 점심식사 (반별로 200불씩
지원, 각 구역에서 준비)

12:30 PM - 1:30 PM: 한마음 걷기대회

+ 한마음 걷기 골인하는 사람부터 타월 및 라플
지급하여 놀이 신청함

1:30 PM - 2:30 PM: 추억의 놀이 한마당

* 윷놀이: 2번 던져서 7점 이상 득점

* 제기차기: 2번 기회 15회면 득점

* 투호놀이: 5개 던져서 3개 이상 득점

* 주사위 : 던지기 7점 이상 득점

**상품은 진행본부에서 본인이 직접 고르기

2:30 PM --모든 신심단체 기금마련 부스 종료

3:00 PM - 4:00 PM: 구역별 연도대회

4:00PM - 4:30 PM: 경품추첨 및 시상식

4:45 PM - 폐회

점심식사

*시간: 11시30분~12시30분

*장소: 성당 친교장

*구역분할: 친교장의 무대를 중심으로 6개 구역 분할됩니다.

토런스 동, 서, 남, 북, 허버 칼슨, PV

*점심식사: 신자 분 들은 각 소속구역으로 가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한마음 묵주기도 걷기대회

*시간: 12시30분 ~ 1시 30분

*구간: 봉사자가 안내예정 (약 2마일 정도)

*준비물: 묵주, 운동화, 간단한 옷차림, 선블락 크림, 모자,
선글라스, 물병

*걷기대회:●묵주기도를 하면서 봉사자가 안내하는 구간을
걸습니다.

● 걷는 것은 자기 페이스에 맞추어서 걸습니다.

● 중간 구간에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걷는 도중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봉사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종착점인 성당에 오시면서 봉사자들의 안내로
기념수건과 라플 티켓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역별 연도대회

구역별로 한 팀씩 연도대회를 진행합니다.

*시간: 3시 ~4시

신심단체 기금마련 행사

● 시간: 12시30분~ 2시30분

● 내용:

상품

* 라플 : H마켓 \$20(25장), 스타 박스\$20(10장)

* 타월 : 라면박스, 김, 프라이팬, 건조대, 주방매트,

냄비, 스토브등...

* 상금 :최우수: \$300, 우수:\$200, 장려상,참가상: \$100

연대(連帶)

“나이 든 노숙자가 길에서 얼어 죽은 것은 기사화되지 않으면서, 주가지수가 조금만 내려가도 기사화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배척입니다. 한쪽에서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음식이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입니다.”(프란치스코 교황, 「복음의 기쁨」 53항)

교회는 하느님과 인간의 연대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계속 이어져야 하고, 마침내 모든 인간에게 다다라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인간이 하느님과 이루는 일치, 그리고 모든 인간이 서로 이루는 일치의 표지요 도구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모범에 따라 이 시대의 힘없는 이, 희생된 이, 가난한 이들과 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이러한 교회를 통하여 모든 문화와 민족들에게 다가가시어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인간이 세상을 ‘인간적으로’ 가꾸려는 곳에 하느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느님의 구원을 세상에 보여 주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과 연대합니다. 어떤 인간도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항상 타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연대성은 인간의 타고난 사회적 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대성은 사회 원리인 동시에 윤리덕이기도 합니다. 연대성은 사회 질서의 원리로서 ‘배타적 이윤 추구와 권력의 갈망’ 같은 ‘죄의 구조’(「사회적 관심」 36항)를 극복하고 사랑과 연대성의 문명을 일구는 데 기여합니다. 윤리덕으로서의 연대성은 타인, 특히 곤경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한 구체적이고 단호한 개입을 의미합니다. 막연하게 동정심을 보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연대성의 원리는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자신이 속한 사회에 빛을 지고 있다는 인식을 기를 것을 요구합니다.”(「간추린 사회 교리서」 195항)

예수님보다 더 연대적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은 인류 전체와의 연대를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타인을 위한 이러한 희생은 극진한 사랑과 연대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1코린 12,26)

Quiz 괄호 안을 채우세요.

‘연대성’은 ()의 사회적 ()이므로, 모든 일치의 표지요 도구인 ()는 주님의 모범에 따라 힘없는 이, 희생된 이, 가난한 이들과 ()를 이루어야 합니다

9월3일 자 정답: 목숨, 사랑, 형제

◆유환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학교구 흥보국

「성경 속 동식물」 34 생명과 불멸의 상징 호두나무

성경에서 호두나무는 아가서에 단 한 번 언급된다.(아가 6,11-12 참조)

이 때문에 한때는 호두나무가 아가서 솔로몬의 노래에 나오는 이 동산에서만 자랐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여러 곳에 호두나무가 자라고 있고 예루살렘 동부에는 ‘호두나무 골짜기’라고 불리는 곳도 있다. 유럽에는 성모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비를 만났는데 호두나무 잎이 비를 막아 주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 「성경 속 동식물」 /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행

하린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써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 (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www.sunnysidecremation.com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메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례보험/장례자금/장례계획/묘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 에이전트
Jay Lee(이안셀모) 310-908-8823
CA Inc.Lic.#0E75182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BRE#01405988 New Star Realty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

조 마리아

☎(310)987-0736

자녀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코지다운/Cozy Down ♣

명품거위털이불, 레녹스 등 각종그릇, 한국택배
2424 Sepulveda Blvd # J, Torrance, CA
☎ 310-784-1212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Body shop & Auto repair

종합정비

☎ (310)965-0481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그린 약국

GREEN PHARMACY

(310)504-0600

플라자 약국

PLAZA PHARMACY

(310)530-3010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토랜스 세풀베다길

뚜레쥬르

새로운 패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TCP18894-P 주정부 허가

베스트 공항 택시 LA공항전문

24 / 7 미니 밴 항시 대기

TEL)310-516-8282

스킨케어

김영란 율리아

☎ (310) 530-3654

1870 W.Carson St. #G Torrance, CA90501

베니스안경원

☎(310) 539-2449

23215 Hawthon Blvd. Torrance, CA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파고다 캐더링

각종 일반잔.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플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CA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중,고,일반

코치 박개순 도미니코 310-997-7770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띠노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